아아날이저믄다, 西便하늘에, 외로운江물우에, 스러져가는 븐홍빗 놀…아々 해가저믈면 해가저믈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우는밤이 또오것마는, 오늘은四月이러괘일날 큰길을물밀어가는 사람소리는 듯기만하여도 홍설시러운거슬 웨나혼자 가슴에눈물을 참을수업는고?

아々 춤을춘다, 춤을춘다, 싯벌건불덩이가, 춤을춘다. 잠々한 城門우에서 나려다보니, 물냄새 모랫냄새, 밤읒개물고 하늘을깨무는횃불이 그래도무엇이不足하야 제몸까지물고쓰들때, 혼자서어두은가슴품은 절믄사람은 過去의펴런꿈을 찬江물우에 내여던지나 無情한물결이 그기림자를 멈출리가잇스랴?…아々 썩거서 시둘지안는 꼿도업것마는, 가신님생각에 사라도죽은 이마음이야, 이라 모르겠다, 저불길로 이 가슴태와버릴가, 이서름살라버릴가, 어제도 아픈발 끌면서 무덤에가보앗더니 겨울에는 말랏던꼿이 어느덧피엇더라마는 사랑의봄은 또다시 안도라오는가, 찰하리 속시언이 오늘밤이물속에…그러면 행여나 불상히 녀겨줄이나이슬가…할적에 쿵, 탕, 불씌를날니면서 튀여나오는매화포, 펄덕精神을차리니 우구々 써드는구경군의소리가 저를비웃는듯, 꾸짓는듯 아々 좀더强烈한熱情에살고십다, 저기저횃불처럼 엉긔는煙氣, 숨맥히는불꼿의苦痛속에타도 더욱쓰거운삶살고십다고 뜻밧게 가슴두근거리는거슨 나의마음….

四月달 다스한바람이 江을넘으면, 淸流碧, 모란봉노픈언덕우에허어여케흐늑이는사람떼, 바람이와서 불적마다 불비체물든물결이 미친우슴을우스니, 겁만흔물고기는 모래미테 드러백이고, 물결치는 뱃줆에는조름이오는「니즘」의形像이 오락가락—얼린거리는기름자닐어나는우슴소리, 달아논등불미테서 목청 썻길게빼는 어린기생의노래, 뜻밧게 情慾을잇그는 불구경도인제는겹고, 한잔한잔또한잔 끗업는술도 인제는실혀, 즈저분한뱃미창에 맥업시누으면 까닭모르는눈물은 눈을데우며, 간단업슨장고소리에 겨운男子들은 때々로 불니는慾心에 못견듸어 번득이는눈으로 뱃가에 뛰어나가면, 뒤에남은 죽어가는촉불은 우그러진치마깃우에 조을때, 뜻잇는드시 찌걱거리는배젓개소리는 더욱가슴을누른다….

아々 강물이웃는다, 웃는다, 怪상한, 우슴이다, 차듸찬강물이 썸々한하늘을보고 웃는우슴이다, 아々 배가올나온다, 배가오른다, 바람이불적마다 슬프게슬프게 삐걱거리는배가오른다….

저어라, 배를 멀리서잠자는 綾羅島까지, 물살빠른大洞江을 저어오르라. 거긔 너의愛人이 맨발로서서 기다리는언덕으로 곳추 너의뱃머리를돌니라 물결끄테서 니러나는 추운바람도 무어시리오 怪異한우슴소리도 무어시라요, 사랑일흔靑年의 어두운가슴속도 너의게야무어시리오, 기림자업시는「발금」도이슬 수업는거슬—. 오오다만 네確實한오늘을 노치말라.

오오사로라, 사로라! 오늘밤! 너의발간횃불을, 발간입셜을, 눈동자를, 또한너의발간눈물을….

—“불노리” 전문(朱耀翰), 창조 제1호(1919)